

불모의 일상에서 상처를 견디는 방식

구효서 · 김한수 · 이순원 세 작가의 최근작 소설을 읽고

정호웅

문학평론가 · 홍익대 국어교육과 교수

구효서의 소설은 난해하다. 그는 설명하지 않고 보여주지만 할 뿐이며, 비현실적이라 해도 무방할, 그리고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예외적 인물·사건들을 중심으로 소설 세계를 구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당연하게도 독자들은 그 상징적 기표들의 안쪽을 읽고 그것들을 엮어 의미화하는 힘든 작업을 수행해야만 한다.

그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구효서 소설은 예외적인 인물이나 사건이 거느린 특이한 분위기만 남기고 슬그머니 스쳐 지나가고 말 것이다. 접속사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자주 서술어를 생략하는, 그리고 판단을 유보하는 의문형 추측형과 짧은 문장을 많이 사용하는, 그리하여 긴밀한 연관성 없이 주르르 펼쳐져 있다는 느낌을 주는 그의 개성적인 문체에 실려 미끄러지듯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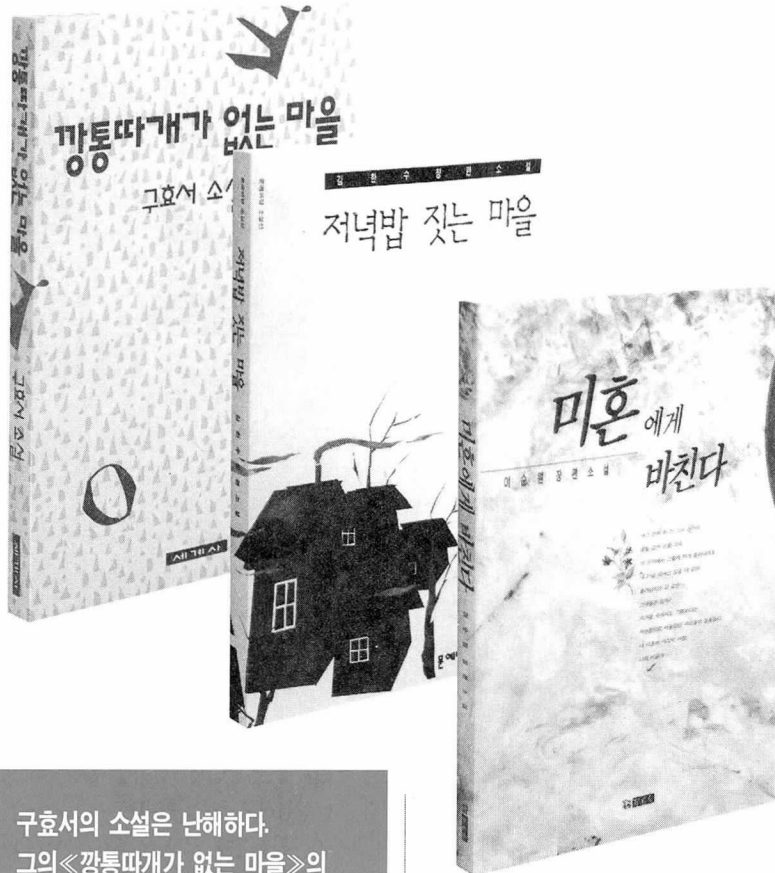
《강통따개가 없는 마을》에는 모두 11편의 작품이 실려 있는데, 소설가가 주인공으로 설정되어 있는 작품이 대부분이다. 이들 작품의 주인공들은 출구를 찾아 고투하지만 그러나 찾지 못하는 인물들이다.

출구를 찾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소설을 통해 제시하는 작가의 대답은 관습화된 사고체계, 방법에 갇혀 있다는 것인 듯하다. 강통따개로는 잘 따지지 않는데도 강통따개에만 집착하는 <강통따개가 없는 마을>의 주인공처럼, 호미를 이용하면 강통 따기는 훨씬 쉬운데 글쓰기, 살아가기의 호미를 찾아내기는 쉽지가 않다. 그럼에도 찾기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 그러니까 이들 작품은 내용상으로 보면, 새로운 사고체계, 방법을 모색하는 치열한 편력의 기록인 것이다.

험한 세월을 열어가는 처절한 고투

소설가가 주인공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작품들의 대부분은 치명적 상처를 입은 인물들의 상처 견디기 방식을 다루고 있다. 마치 연극처럼 실제 현실을 가공의 현실로 대체하기, 삶을 철저히 포기함으로써 나무와 같이 그냥 존재함의 차원으로 존재 전이하기, 산꼭대기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듯 상처의 근원을 굽어보으로써 그 근원을 무화시키기 등.

이 독특한 상처 견디기 방식은 상처입힌 대상의 탐구를 통해 그것을 넘어서는, 말하자면 정면 돌파가 아닌 우회적 방식이라는 점에서 동질적이다. 우리를 상처 입히는 현실세계의 폭력성에 대한 두려움의 소산인지 아니면



구효서의 소설은 난해하다. 그의《강통따개가 없는 마을》의 11편 작품은 출구를 찾아 고투하지만, 그러나 찾지 못하는 인물들 다룬다. 김한수의 《저녁밥 짓는 마을》은 열한살 소년이 험한 세월을 건너 스무살 문턱에 도달하기까지 그린 성장소설이고 이순원의《미혼에게 바친다》는 서른두살 미혼남과 스물넷(또는 다섯)된 유부녀의 절실하고 긴장된 사랑이야기를 담았다.

초월의 지향인지 알 수 없지만, 어떻게 구효서 소설의 이같은 특성은 우리 소설사에서 새로운 것이다.

김한수의 《저녁밥 짓는 마을》은 성장소설이다. 열한 살의 소년이 험한 세월을 건너 스무 살 청년의 문턱에 도달하기까지를 담담하게 그렸다. 담담하게? 남편과 자식을 버린 어머니, 대학물을 먹었음에도 공사판 막노동자로 떠돌다가 일찍 죽은 아버지를 대신하여 어린 동생들을 돌보며 힘겹게 삶을 열어나가는 일인칭 주인공의 처절한 고투가 중심 내용인데 담담하다니 이상하지 않은가. 몇 가지 내

적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과 동생들의 삶을 개척해 나아가야만 한다는 주인공의 의지와 의지의 실천에 무게중심이 놓임으로써 그가 겪는 세월의 험난함이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미래는 더 나은 것이란 낙관에 이끌리는 적극적 의지와 그 실천은 삶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환한 분위기를 지니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앞의 요인과 연관된 것인데, 어른들의 세계에 대한 추구의 불충분함이다. 소년 화자 관찰자인 주인공의 시점만으로 어른들, 곧 어머니와 아버지, 백부의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깊이있는 탐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것이다. 자식에 대한 본능적 애정조차 지니고 있지 않은 모성 부재의 어머니나 대학을 중도 작폐하고 술집 작부를 좇아 인생을 허비하는 아버지와 같은 특이한 인물 성격에 대한 깊은 천착이 행해졌다면 우리 소설의 빈 부분을 메우는 작품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점 아쉽다.

생명의 창조적 연소를 위한 꿈

이순원의 《미혼에게 바친다》는 서른 두

살 미혼남이 스물 넷(또는 다섯)된 유부녀를 우연히 만나 사랑하다 헤어지기까지를 그린 연애소설이다. 어떻게 보면 소꿉장난 같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절실하고 긴장된 그들의 사랑은 일상을 돌리는 시간의 반복에 자신을 맡기고 바래가는, 그들의 열정을 잃어버린 삶 저쪽에 빛나는 환각과 같은 것이다. 시인이, 작가가 되고자 했으나 실패하고 영화 광고 카피를 만드는 기계적이고 소모적인 불모의 작업에 꼼짝없이 갇힌 사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10살이나 더 나이든 남자와 결혼해 집안에 갇힌 여인이 꿈꾸는 환상 세계의 사랑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사랑은 통상적인 남녀 관계가 아니라 그들의 꿈으로, 그들 불모의 삶을 되비추어 떠올리는 역광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빠꾸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보리밭 속 두 남녀의 야성적 교합과 성에 눈뜨기 시작한 소년의 순수한 호기심이 얽혀 이루는 맑고 뜨거운, 숨막힐 듯 고조된 긴장의 분위기가 그들의 사랑을 에워싸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정체, 무기력, 갇힘, 반복의 일상과 약동, 생기, 열림, 시간조차 멈춰선 한 순간의 타오름이란 이원적 대비를 통해 불모의 일상을 부각시키고 생명의 창조적 연소를 꿈꾸는 것이다.

《강통따개가 없는 마을》 구효서 지음 세계사/A5신/304면/6,000원
《저녁밥 짓는 마을》 김한수 지음 문예마당/A5신/288면/5,800원
《미혼에게 바친다》 이순원 지음 푸른숲/A5신/326면/6,300원

출판저널
정기구독 문의
732-1433

* 1년분(22호분)
30,000원
* 반년분(11호분)
16,000원